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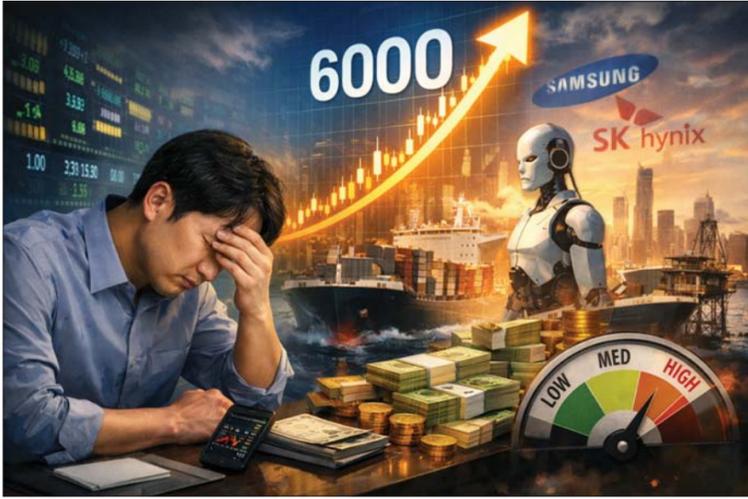
반도체 강세에 코스피 고공행진... 낙관론 속 '신중론' 부상

올해 'KRX 반도체 TOP15' 30% ↑ 미국과 협력 추진 '조선 분야' 유망 한국형 공표지수 오르며 과열 경고

직장인 김병덕(가명·37) 씨는 삼성전자 주가가 최고가를 썼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지난해 6월 6만원대인 삼성전자 주식을 3000만원어치 샀다가 11월 10만2300원일 때 모두 팔았다. 오를 대로 올랐다고 판단해서다. 그런데 지금은 20만원을 가볍게 넘긴 상태다. 김씨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6000을 돌파하면서 그간 증시를 견인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조선 분야 종목 투자가 주목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분야의 우량주와 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연 2%대인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코스피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 '상투를 잡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 이미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와 주가가 하락할 경우 조정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저점을 기다리는 투자자로서는 야속한 국면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선 코스피 5000 돌파 이후에도 반도체와 AI, 로봇, 조선 분야 대형주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가 20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 산업과 연관된 우량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테마 지수 'KRX 반도체 TOP 15'는 올해 들어 30%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씨티(Citi)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을 웃도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며 코스피 상단 7000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선보인 후 로봇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현대차는 올해만 주가가 80% 오르며 시가총액 100조 원을 넘어섰다. 미국 정부,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조선 분야도 유망 업종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 세계 혜택을 받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 배당주 투자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조정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AI 시설 투자가 늘수록 고용이 악화되고 소비가 줄어 경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그 경우 회사채 발행이 위축되고, AI 투자 역시 둔화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사상 최고치인 1억150만3715개에 달한다. 주식 계좌 수

가 한국 인구보다 두 배가량 많은 셈이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증권 계좌를 의미한다.

2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도 108조2291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20조 원 넘게 늘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위해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뒤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한다. 같은 날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31조7123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초(27조4207억 원) 대비 4조 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과열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국형 공표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1포인트(0.40%) 뚝 51.31을 기록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차입 투자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테슬라 밀리고 MS·구글·한국 ETF 떠올라

해외주식 Click
종목 교체·레버리지 전략 병행 미국 주식 보관금액 4%대 감소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테슬라가 주간 순매수 상위권에서 밀려나 데 이어, 미국 상장 한국 ETF로 자금이 이동하고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까지 한 달 새 감소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월 19~25일) 해외주식 투자자(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5위에 테슬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3배 ETF'로 9311만달러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6807만달러 순매수로 2위, 알파벳이 5823만달러 뒤를 이었다. 아마존과 나스닥 100 ETF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보관금액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24일 기준 미국주식 보관금액 1위는 테슬라로 258억9951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24일 299억9743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40억달러 줄어 13% 넘게 감소했다.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80억5769만



ChatGPT로 생성한 서학개미 자금 흐름 변화. 테슬라 매수세가 주춤한 사이 MS·알파벳과 반도체 레버리지 ETF, 미국 상장 한국 ETF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

달러에서 176억7233만달러로 소폭 줄었고, 팔란티어도 감소했다. 반면 알파벳은 64억7895만달러에서 74억5404만달러로 늘며 3위로 올라섰다. 애플과 인베스코 QQQ ETF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매수세다.

같은 기간 서학개미는 '코스피 3배 레버리지(DIREXION DAILY MSCI SOUTH KOREA BUY-LL 3X ETF)'와 '한국 추종 ETF(iShares MSCI South Korea ETF)'를 순매수 상위권에 올렸다. 이달 25일까지 코스피가 44.4% 오르며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

률 1위를 기록하자, 미국 시장을 통해 한국 지수를 레버리지로 담거나 달러 자산 형태로 편입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주식 계좌와는 별도로 해외 계좌에서 한국 지수를 매매하거나, 환율·세제·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변동 속에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도 한 달 새 줄었다. 이달 24일 기준 미국 주식 전체 보관금액은 1649억1616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24일 1723억4689만달러에서 약 74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한 달 만에 4% 넘게 줄어든 셈이다.

외부감사 대상 4만2891곳... 1.8% 증가

금감원, 외감 대상 회사 현황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4만2891사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감사인을 당국이 직접 지정하는 직권지정 회사도 8.8% 늘어나 지정회사 비율이 4.6%로 상승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사로 전년(4만2118사) 대비 773사(1.8%) 증가했다. 신외감법 시행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2.2%)보다 0.4%포인트 낮아지며 확대 속도는 다소 둔화됐다.

회사 유형별로는 비상장주식회사가 3만9467사로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주권상장법인인 2752사(6.4%), 유한회사는 672사(1.6%)로 집계됐다.

감사인 선임 현황을 보면 외부감사 대상 중 3만3580사(78.3%)는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다. 4564사(10.6%)는 감사인을 변경했고, 4747사

(11.1%)는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올해 감사인을 신규 선임했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선임 비중은 27.0%로 비상장사(9.5%)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주기적 지정제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6.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기적 지정회사는 525사로 전년(530사)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직권 지정회사가 1446사로 전년(1329사) 대비 117사(8.8%) 늘면서 전체 증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6%로 전년(4.4%)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직권 지정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75사로 가장 많았고, 감사인 미선임 381사, 재무기준 미달 196사, 관리종목 156사 순이었다.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을 보면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이 1045사(53.0%)를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손실 위험 먼저”... ELS 판매관행 개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손실 위험을 먼저 설명하도록 판매 관행 개선에 나선다. 손익을 한 번에 제시하는 기존 설명 방식 대신 손실과 이익을 분리해 제

시하고, 저위험 상품과의 비교 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 업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열고 ELS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행사에는 ELS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최승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상품설명서 교부 등 형식적인 정보 제공만으로는 소비자가 실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소비자 친화적 관점에서 설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협회, 이동현 신임 수석부회장 선임

정기회원총회서 5대 경영목표 확정

코스닥협회는 26일 '제27기(2026년도) 정기회원총회'를 개최해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임 수석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했다.

협회는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의 나침반, 코스닥!'이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주요 경영목표로 ▲코스닥규제 환경완화 및 기업가치 제고 기반 확립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회원지원 서비스 강화 ▲대내외 네트워크 확장

소통활성화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 강화 등을 선정했다.

협회 수석부회장으로는 이동현 오상헬스케어 회장(사진)을 선임했으며, 박상순 지엔비에스 에코 대표이사, 김창균 아이지넷 대표이사 회장 등 총 2명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 강재구 오에스피 대표이사,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이사 등 총 2명을 감사로 선임했다.



/허정윤 기자